

# 아시아나 주가 6일간 102% 급등... 4년만에 최고가

상한가 1680원 오른 7280원 마감  
에어부산·아시아나IDT 등도 급등  
매각 땀 재무구조 개선·비용절감

재무구조 안정화에 따른 기대감에 아시아나항공이 연일 오름세다. 에어부산, 아시아나IDT 등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와 모회사 금호산업 등 주식시장에 상장된 금호그룹 주가가 모두 급등했다.

15일 아시아나항공은 전일 대비 가격 제한폭(1680원)까지 오른 7280원에 장을 마감했다. 2015년 5월 20일(종가 기준 7300원) 이후 약 3년 11개월 만에 최고가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일 이후 연일 상승세를 보였다. 해당 기간 주가 상승률은 102.2%에 달한다. 덩달아 금호산업의 아시아나항공 지분(33.47%) 가

## 〈아시아나항공 재무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8년말	2017년말
부채총계	7,098	7,357
차입금	3,440	4,523
1년이상상환의무 <sup>1)</sup>	1,320	2,124
자본총계	1,093	1,300
부채비율(%)	649.3	565.9
IFRS 회계기준변경후부채비율(%)	868.7	-
EBITDA/이자비용(배)	3.4	4.4

/자료=아시아나항공, 유진투자증권

주1: 2019/1/31 무보증사채 48십억원 상환

치도 5000억원을 넘어섰다.

아시아나항공의 상승세는 매각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에 기인한다. 이날 역시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인 금호산업이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앞서 신용평가사들은 아시아나항공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한정' 의견을 받음에 따라 신용등급 하향을 잇따라 검토한다고 밝혔다. 3월 22일 한신평은 아시아나항공을 '워치리스트(Watchli

st·하향검토)'에 등록했고, 나이스신용평가도 아시아나항공 신용등급(BBB-)을 하향검토 대상에 올렸다.

당시 증권사들은 신용등급 하향 시 기존 매출채권유동화 차입금을 일시에 조기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는 등 재무적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KB증권은 투자 의견 '보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2018년 말 기준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총 3조4400억원의 차입금 중 장기

차입금 2580억원, 자산유동화 1조1417억원 등은 회사채 BBB- 미만으로 떨어질 시 조기지급 사유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매각이 성사될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새로운 대주주를 맞이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재무적 안정성이 높은 주체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기존 항공사들과 경쟁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12년 대한통운(현 CJ대한통운)은 금호그룹에서 CJ그룹으로 매각됐고, 이를 주된 이유로 회사채 신용등급이 두 등급 올랐다.(A0→AA-, 한국신용평가사)

아시아나항공의 2018년 연간 이자비용은 1635억원이다. 조달금리가 1%포인트만 하락하더라도 310억원의 세전 이익 개선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증권사가 전망하는 아시아나

항공 2019년 세전이익 350억원의 88.6%에 달한다.

아울러 유상증자 등 자본 보충으로 추가적인 차입금 축소 및 이자비용 감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이 대규모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고, 항공업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가진 기업에 인수될 경우 신용등급 하향조정을 피할 수 있음은 물론 상승의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주가 흐름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관련주도 급등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인 금호산업은 전날보다 3450원(29.61%) 오른 1만51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29.94%)과 아시아나IDT(29.78%)도 상한가를 기록했다.

/손업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증권 다이제스트



### 대신증권 3개월 만기 RP 특별판매

대신증권은 3개월 만기 세전 연 3.0%의 수익률의 환매조건부채권(RP)을 특별 판매한다. 3월 이후 대신증권에서 개인연금 상품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타사에서 개인연금 상품을 이동해온 고객이 대상이다.

특판RP의 한도는 순증액의 3배이며 최대 1억원까지 특판RP를 매수할 수 있다. 선착순 판매로 진행되어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신증권 홈페이지나 고객감동센터, 가까운 대신증권 영업점을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손업지 기자

### 한화투자증권 증여세 등 무료 신고대행

한화투자증권은 오는 5월 24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등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금융소득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주는 서비스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는 5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이상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고 오류 및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김유진 기자

## 코스피기업 부채 줄어... '재무 안정성' 개선

부채비율 105.96%, 2.4%p 하락  
자본총계 1099조원, 6.98% 증가

지난해 코스피 상장기업의 부채비율이 전년보다 소폭 감소하면서 재무 안정성이 한층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기업 중 신규 상장사 등을 제외한 589개사의 지

난해 말 부채비율은 105.96%로 1년 전보다 2.40%포인트 하락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채비율은 기업의 부채총계를 자본총계로 나눈 값으로 재무 건전성과 안정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조사 대상 기업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총계는 1165조770억원으로 2017년 말보다 4.61% 증가했다.

자본총계는 1099조5614억원으로 6.98% 증가했다.

부채비율이 100% 이하인 기업은 조사 대상의 57.7%인 340개사로 나타났다.

166개사(28.1%)의 부채비율은 100% 초과~200% 이하 수준이었고 83개사(14.1%)는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섰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농림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등 20개 업종의 부채비율이 감소했다.

반면 광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

업, 코크스·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 등 17개 업종의 부채비율은 상승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상장법인 754개사 중 589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신규상장 3개사, 결산기 변경 2개사, 분할·합병 50개사, 감사의견 비적정 8개사, 자본잠식 2개사, 금융업 100개사 등 전년도와 비교 불가능한 165개사는 분석에서 제외됐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한국거래소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코스닥 상장법인의 신뢰성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등 회계 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왼쪽 네번째)이 최중경 한공회 회장(오른쪽 세번째)과 포즈를 취했다. /한국거래소

## 코스닥 상장법인 회계역량제고 맞손

KRX-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거래소(KRX)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코스닥 상장법인 회계 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코스닥 상장법인이 현행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예비 컨설팅을 제공하고 신(新)외감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예비 컨설팅은 향후 외부감사 시 중요 취약점으로 지적될 가능성이 높은 미비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

는 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 관련 예비컨설팅 지원이 필요한 코스닥 상장법인을 선정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해당 예비컨설팅을 수행할 전문가를 선정해 교육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상대적으로 기업규모가 작고 전문 회계인력이 부족한 코스닥 상장법인의 회계역량제고를 위해 마련됐다"며 "코스닥 상장법인이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 프리미엄 싱글홈 '오렌지카운티남산'

퇴계로 대로변에... 144개실 분양

서울 도심 한복판에 전 세대 복층형 프리미엄 싱글홈 '오렌지카운티남산'이 들어선다. 쿼드러플 역세권 입지에 생활편의시설이 풍부해 1인 수요 및 임대수요가 높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동국대학교 인근 퇴계로 대로변에 공급하는 오피스텔 '오렌지카운티남산' (오렌지엔지니어링 시공, KB부동산신탁시행)이 분양 중이다. 이 오피스텔은 지하철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3호선 동대입구역, 4호선 충무로역, 2호선 을지로4가역 등 서울 대표 4개 노선이 모두 지나는 쿼드러플 황금역세권에 위치한다. 동호대교와도 가까워 강남진입은 물론 서울 도심 출퇴근이 10~20분이면 가능하다.

탄탄한 배후수요도 강점이다. 출퇴근 인구가 밀집한 시청, 광화문, 압구정 등이 5km 이내이며 CJ본사빌딩, 신라호텔 등이 가깝다. 동국대 서울캠퍼스도 걸어서 4분 거리다.

생활편의시설 또한 풍부하다. 제일병원, 중구청, CJ푸드월드,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 패션거리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생활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오렌지카운티남산' 주경투시도. /오렌지엔지니어링

아울러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장충단공원이 가깝고 창밖으로는 남산과 북한산 조망이 가능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오피스텔은 전 세대 복층형으로 '프리미엄 1인족'의 관심을 받고 있다.

오렌지카운티남산은 총 144실 13층 규모의 복층형 오피스텔로 지하 2층부터 지상 1층의 근린생활시설과 지상 2층부터 13층까지 오피스텔로 구성돼 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쿨탑, 비데 등 전 세대 풀퍼니시드 시스템은 물론 관리비 절감을 위한 지열냉난방시스템, 스마트 IoT(사물인터넷) 시스템이 무상 적용된다. (문의:02-2276-1112)

/채신화 기자 csh9101@